

화목제 (레위기 3:1-17)

오늘은 2021년에 받은 많은 응답을 나누는 시간이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다. 한해를 보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때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지나간 한해를 뒤돌아 보면 많은 감사도 있고 답도 나온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반드시 한번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한해 동안 교회의 여기저기 구석구석 헌신해주시고 봉사해주신 것 감사한다.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믿는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 나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주시는 것이다. 내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다음 단계를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가장 먼저 복음을 지켜야 한다.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 계속 바깥에서는 복음을 공격한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있으면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 못한다. 하면 자기들이 죽는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바깥에서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무너진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째 사명은 정확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 복음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나에게도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거 하나 뿐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게 되어 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목표는 세상의 70억 인구 모두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사람을 지명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선택도 안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설득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틀렸다. 죽어도 안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음대에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이라는 4대 기도제목을 가진 교회이다. 내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기도제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남미를 위하여 100팀 현지인 선교사, 중요한 기도제목이다. 두명이 팀이 된 선교사를 보낼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나 보내는게 아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과 영어권을 위한 렘넌트 제자들을 계속 세워야 한다. 나는 늘 그런 것을 보고 있다. 오늘 하리가 드림을 치는데, 언제 배웠나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성장이 아니라 조직을 가진 전도, 사도바울과 같은 전도의 형태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잡은 단어가 100지교회 운동이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믿는다. 시일은 걸릴 것이다. 내년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2부예배에 이런 방향과 관련된 중직자 산업인 전도제자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것이다. 자연적으로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교회 사역자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지교회라면 조직이 있어야 한다. 조직 없어도 괜찮다. 나 혼자 있어도 나 지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나는 시대적인 중직자로 살고 싶다면 얼마든지 들어오라. 그래서 그냥 2부예배가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는 2부 예배가 될 것이다.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통역된 것을 녹화해서 올릴 것이다.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해도 메시지는 놓치

지 말고 함께 따라오기 바란다. 내년도 우리가 잡은 단어이다. 지교회, 중직자, 렘넌트. 늘 듣는 단어이고 옛날부터 아는 단어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다. 많은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1. 화목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지는 것을 위한 제사이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번제를 드릴때에는 항상 수컷만 했지만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이면 된다고 했다. 당연히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때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화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고 절대 헤어지는 일이 없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절대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는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헤어졌다. 죄 없었으면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번 화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죄 때문에 나누어 지는 일이 없다. 우리 보통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은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틀렸다. 그 사람의 조건은 하나 있다. 정말 예수를 믿나? 정말 믿으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이다. 하나님은 한번 용서했으면 영원히 용서이다. 너 한번 용서했는데, 또 죄를 지었으니까 너 가라는 것은 절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을 인간 하나도 없다. 전부터 모두 지옥이다. 죄를 가지고 심판한다면 모두 지옥이다. 한명도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는가? 하나님이 신 그 분이 쓸데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한명도 구원 못 받으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것을 빼앗을자가 없다고 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죄를 자꾸 지으면 감옥에서 죽을수가 있다. 그것이 싫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다. 감옥에서 죽어도 천국에 간다. 감옥에 가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표나는 죄는 안 짓고 표 안나는 죄를 늘 짓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구원은 변함이 없다. 단지 내 심령이 편하지 않다. 심령이 편할려면 죄 안져야 한다. 그런데 죄가 안 지어지는가? 그래서 답을 주었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영적 문제이지 육신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것은 길이 단 하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결론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뭐가 중요하겠는가? 세상에 중요한거 하나 없다. 24시간 후에 죽는데. 구원 말고는 가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다. 어쩌다 보면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간증도 듣고 해보니 처음에 백신 없을 때 코로나 걸려서 죽음 가까이 갔다 온 사람도 있었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때 뭐가 생각나나 물었더니 아무것도 중요한 것 없고 생각나는 것 없고 오직 구원 하나만 생각났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이제 죽음을 초월했다고 한다. 정말 그 때 되면 하나밖에 없다. 그 길을 열여준 것이 바로 화목제이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회개를 해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 잘못했다고 울면서 해도 안 받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만일 그 가치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면 이게 정말 몸돌바를 모르는 것이다. 회개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면. 그런데 회개를 안해도 받아주네? 그것이 화목제이다. 죄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받아주는 것이다. 가라 소리를 안한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것도 내가 내 머리로 알고 난 뒤에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레위기 7장에 가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 화목제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시간 이상의 성경공부가 필요하다.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레위기 7장을 읽어보라.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전체를 태워서 드렸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내장과 콩팥, 간, 그 위에 덮여 있는 기름을 태웠다고 한다. 양의 경우에는 꼬리 부분의 기름도 다 태워 드렸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7절에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였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려고 하니 이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름

도 마찬가지로 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너 사이의 화목을 말하네니 그거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제사를 끝내고 난 뒤에 남은 고기를 먹는 의식이 있다. 어떤 고기는 그날 안에 다 먹어야 한다. 레위기 7장에 그것이 나온다. 하루 이상 남기지 말라, 이를 이상 남기지 말라고 경해났다. 그래도 남은 것은 태워서 내버려야 한다. 이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이 보통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해진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제이니까 함께 먹는 것이 있다. 신약의 성만찬과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대신 이 고기를 먹는 거기에는 부정함 자가 절대 못 들어간다. 부정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에 손을 닿았거나 동물의 시체에 닿았거나 몸의 유출병이 있으면 안된다. 그런 사람은 일정 순서를 따라서 정하게 된 이후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자 외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에게 내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보냈다. 그런데 싫어한다. 나는 거기 가지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살진 소도 잡고 잘 장만했으니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체로 가고 그랬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임금이 그래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 살인한자를 전부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 살렸다. 그래서 종들에게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그래서 거기서 누구든지 있는데 데려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예복을 안 입었냐고 하니 아무말 못했다. 그래서 그 왕이 종들에게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했다. 슬퍼 울며 이를 갈것이라고 하였다. 중요한 메시지이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보냈다. 이방인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안 입고 왔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 그러면 손발 묶어 쫓아내는 것이다. 슬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회개 안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 중에 우리 주체와 맞는 것은 아무리 사람을 모아도 그 자격 조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이 화목제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절대 용서가 없는 것이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모아도 조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화목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히 화목하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오만 것을 다해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연세가 들면 치매가 드는 분들이 계시다. 젊은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치매가 들고 나서 하루종일 하나님 욕을 한다. 진짜 글로 쓰기 힘든 있는 욕 없는 욕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면 그 사람 지옥가는가? 말이 안된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이 은혜를 입었다. 이 화목은 무슨 짓을 해도 취소되지 않는다. 절대 깨지지 않고 한번 화목은 영원한 화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잡지만 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언약을 잡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것이 화목제의 결과이다. 우리가 울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아시니까. 우리 머리털가지도 다 세고 계시다. 그래서 이 화목을 누리야 한다. 근본적으로 누리고 매일 해야 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하루 속히 24시가 되어서 24시간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의 길

2022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여기에 대하여 나의 길을 가고 내것을 자꾸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화목되었다고 해도 자꾸 내 길을 고집하면 육신적으로는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주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근본은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것이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었다. 영원히 화목된 사람이 생각도 화목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 약속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데로 구하라. 응답될 것이다.

모세에게 어느날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임했다. 그게 가나안이었다. 이런 말씀을 받은 모세가 뒤를 돌아보았는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나안으로 갔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다. 천년의 응답을 받은 것 아니겠나? 한나가 어느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 너무나 힘들었다. 왜 너는 아들이 없는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했다. 한나는 준비된 제자라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었다. 그 한 순간 때문에 더 이상 슬픈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했다. 왜 그랬는가? 답 난 것이다. 답이 아니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된다. 믿음이다. 나도 아들 있게 되어 있어. 아직 아무런 표시 없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이후에 3남 2녀 더 낳았다. 이것이 생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와 언약이 되니 사단이 무너지므로 더 이상 슬픈 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이 100년 응답 받은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있다고 했다. 과연 그렇다. 당연히 그렇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화목을 얻었다. 생각해보라. 진짜 내가 지옥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었다. 분명히 있다. 심판이. 그리고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이게 2022년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 때문에 이 저주에서 나왔다. 그래서 새해를 두고 우리가 무슨 생각,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것,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내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와 선교, 교회와 렘넌트, 정말 참된 중직자, 산업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각자의 환경이나 생각이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부메시지를 듣는 제자들은 이미 이런 메시지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237과 맞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산업을 가진 중직자가 산업이 237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3단계는 237정도가 아니다. 한번씩 어떤 영상을 보면 우주군이라는 것이 나온다. 우리는 군대라고 하면 땅의 군대만 생각하는데,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무슨 뜻인가?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다른 영상을 보고 이해했다. 위성같은데에 폭탄을 싣는 것이다. 그것을 실어서 평소에도 지구를 돌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전쟁 나면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돌맹이나 쇠가 위에서 떨어지면 다 타버리는 속도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할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있다. 비행기를 띄워도 레이더에 걸리고 미사일도 다 걸린다. 그런데 바깥에서 돌고 있다. 그러다듬에 바로 떨어뜨리면 너무 빨라서 요격도 못한다. 그리고 테슬라 영상을 봤는데, 이 회사가 핸드폰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폰 같은거 난리난다고 한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것을 만든다고 한다. 그 기술은 모르겠고, 참 놀란 것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테슬라 한 회사가 위성을 12,000개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서너개 되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화성에 가도 핸드폰으로 교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올린다고 한다. 이제 우리가 산에 가면 핸드폰 안 터지는 곳이 있는데, 이제는 아마존이나 밀림 상관 없이 다 터지는 것이다. 놀랍다. 그런데 이런 성공은 성공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성공하면 뭐하려고 하는가? 심판권자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걸려들면 손발 묶고 바깥에 던져진다. 이런 분들은 생각이 237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237 해도 화성까지는 생각 안한다. 하나님의 237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237이 필요하다. 많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다. 아무리 위성 만이천개 올려도 하나님이 지구 멸망시키면 끝이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다. 2022년에는 더더욱 237 하기 바란다.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달면 안된다. 아무 말이 필요 없다. 그것 그냥 하는 것이다. 안되어지 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2022년 되기 바란다. 전부 다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시간표이다.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니가 두달란트면 두달란트 남겨라 그래도 너는 착하고 충성된 중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주셔서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소원 성취하는 임마누엘남가주교회 성도들 되기 바란다.